

## 【자료소개】

『滿洲歷史地理』上, 第1編: 漢代の 朝鮮

### 「昭帝 以後의 朝鮮」(白鳥庫吉・箭內亘) 譯註\*

이 준 성\*\*

#### ┃ 차 례 ┃

1. 전한(前漢)
2. 후한(後漢)

## 【해설】

『滿洲歷史地理』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에서 1913년 상·하 두 권으로 간행한 역사지리서이다. 조선과 만주의 역사 지리에 관한 연구를 위해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sup>1)</sup>는 만철 총재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1857~1929)를 설득하여 1908년 만철 도쿄지사 내 조사실을 설치하였는데, 2)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총괄 아래 야나기 와타리(箭內亘, 1875~1926), 마쓰이 히토리(松井等, 1877~1937),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876~1940),

\* 白鳥庫吉・箭內亘, 「昭帝 以後의 朝鮮」(白鳥庫吉 監修, 箭內亘・稻葉岩吉・松井等 撰, 1913, 『滿洲歷史地理』上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1)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약력 및 연구의 특질에 대해서는 나가하라 게이치(永原慶二), 가노 마사나오(鹿野正直) 편저, 1976, 『日本の歴史家』, 日本評論社; 아오야기 준이치(青柳純一), 2000, 「白鳥庫吉と『滿鮮史』學の虛像」, 『인문논총』55,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참고.

2) 고바야시 히데오 지음, 임성모 옮김, 2004, 『滿鐵 -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산치덤; 박장배, 2009, 「만철 조사부의 확장과 조사 내용의 변화」, 『中國近現代史研究』第43輯, 중국근현대사학회 참고.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1873~1961),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1878~1952) 등이 자료조사와 집필 작업에 참여하였다.<sup>3)</sup>

본고에서 다루는 부분은 제1편 ‘漢代の 朝鮮’을 구성하는 두 개의 절 중 두 번째 절인 ‘昭帝 以後의 朝鮮’이며, 첫 번째 절은 『만주연구』12권에 소개된 바 있는 ‘武帝 始建의 朝鮮’이다.<sup>4)</sup> 『만주역사지리』의 목차를 보면 제1편(漢代の 朝鮮)을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와 야나이 와타리(箭内互)가 공동 집필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본 절의 도입 부분을 보면 ‘武帝 始建의 4郡에 대해서는 이미 前節에서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박사가 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제 이후 兩漢의 낙랑·현도 2군의 강역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 제1편(漢代的 朝鮮)의 내용 중 1절(武帝 始建의 朝鮮)은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가, 본고의 내용인 2절(昭帝 以後의 朝鮮)은 야나이 와타리(箭内互)가 나누어 집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야나이 와타리(箭内互)는 본 절 외에도 제3편 三國時代의 滿洲, 제4편 眞代의 滿洲, 제5편 南北朝時代의 滿洲 부분을 집필하였다. 그는 도쿄 제국대학 동양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주요 저서로는 『몽고사 연구』가 있다.

본 절은武帝에 이어 한나라를 통치한 昭帝 이후의 朝鮮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소제 즉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始元 5년(기원전 82년) 진번군과 임둔군이 각각 현도군과 낙랑군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4군을 모두 다룬 앞 절과 달리 현도군과 낙랑군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내용상으로 보면 앞 절에서는 한사군의 설치 상황과 그 지명의 해석에 치중한 반면 본 절에서는 전한과 후한으로 나누어 낙랑군과 현도군의 각 縣별로 위치를 비정하고 이를 통해 동서남북 각 방향의 강역을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제1편의 제목이 ‘한대의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조선의 영역을 다루지 못한 채, 조선 멸망 이후 설치된 한군현에서부터 서술을 시작

3) 이들은 일본 동양학의 골격을 세우는 인물들이 되는데, 일본 동양학의 생성과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스테판 다나가 지음, 박영재 옮김, 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참고.

4) 김지영·위가야, 2011, 「자료소개 : 武帝 始建의 4郡」 『만주연구』 12.

하고 있는 점이 유의된다. 뿐만 아니라 서술 상에서도 ‘고구려인의 西侵’ 등 중국 한나라를 중심에 두고 있는 듯한 표현이 눈에 띈다. 이러한 모습은 저자들의 편파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해준다.

## [번역]

前漢 元封 2년(기원전 109년) 武帝[재위 기원전 141년~기원전 87년<sup>5)</sup>]는 水陸兩軍을 보내 衛氏 朝鮮國을 치게 하고 이듬해(기원전 108년) 마침내 이를 멸하였다. 그리고 그 지역에 중국의 제도에 준하여 樂浪·臨屯·玄菟·眞番의 4군을 설치하였는데, 이로부터 현재 조선반도의 대부분이 支那의 땅이 되었다. 그런데 始元 5년(기원전 82년)에 이르러 昭帝[재위 기원전 87년~기원전 74년]는 眞番·임둔 2군을 폐지하고 眞番군을 현도군, 임둔군을 낙랑군에 병합했다.<sup>6)</sup> 무제 始建의 4군에 대해서는 이미 前節에서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박사가 논하였다.<sup>7)</sup>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제 이후 兩漢의 낙랑·현도

5) 이하 본문의 [ ]는 역자.

6) [원주] 4군 廢合의 일은 『후한서』(권115) 東夷傳 濊條에 “至昭帝始元五年置臨屯眞番以并樂浪玄菟”라고 보이고, 『전한서』(권28) 지리지에는 樂浪·玄菟 2군의 기사만을 수록하고 다른 2군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의 의심도 용납하지 않는다. 단지, 廢合이 어떻게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異說을 낳을 수도 있지만,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박사 및 정약용이 임둔은 낙랑에, 眞番은 현도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한 것은 가장 온당한 것으로 생각건대 鐵案이라고 하기에 족하다. 『史學雜誌』 제5편 286쪽. 『大韓疆域考』 권1 임둔고 및 眞番고 단 兩氏 모두 이것을 自명한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그 이유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직 이 견해를 부인하려고 하는 論者도 있다고 들었다. 그렇지만 應劭의 說에 “玄菟郡故眞番, 朝鮮胡國”(『전한서』 지리지 注)라고 되어있고, 泐는 『전한서』의 편자 반고와 마찬가지로 후한 말의 顧學이기 때문에, 그가 말한 바를 신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단지 이 한마디로 兩氏의 해석을 긍정하기에 족한 것이다. 또 임둔군치 東曉縣은 廢合後에는 낙랑군 중의 一縣이며, 이것이 곧 임둔이 낙랑에 합쳐진 것을 증명한다. 더 나아가 眞番·임둔 2군의 위치를 분명히 하면, 더욱 4군 廢合의 진상을 깨달게 될 것이다. 前節, 「武帝 始建의 4郡」 참조.

(역자주 : 원문에는 『대한강역고』의 지은이를 ‘丁鏞’이라 하였다. ‘정용’은 ‘정약용’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기에, 위 각주에는 ‘정약용’으로 수정하여 놓았다. 다만, 정약용이 편찬한 책은 『我邦疆域考』이고, 『대한강역고』는 장지연이 1903년에 『아방강역고』를 현대식으로 증보한 책이다.)

2군의 강역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 1. 전한(前漢)

### 1) 낙랑군(樂浪郡)

『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낙랑군은 25현을 領屬한다. 우선 각 현의 위치를 살펴보고, 이어 낙랑군의 강역을 논증하고자 한다.

#### (1) 朝鮮縣(지금의 平壤)

조선현은 지리지에 낙랑군 소속의 首縣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제가 정복한 조선국과 동일한 이름으로 應劭의 注에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다”<sup>8)</sup>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낙랑군의 치소는 옛 조선국의 수도 王險城과 동일한 지역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왕검성이 지금의 평양에 비정된다는 것은 『水經注』·『括地志』·『通典』 등의 기사에서도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낙랑군의 치소인 조선현은 지금의 평양으로 파악된다.<sup>9)</sup>

7) 김지영·위가야, 2011, 『자료소개 : 武帝 始建의 4郡』 『만주연구』 12 참고.

8) 『漢書』 卷28下, 地理志 下. “樂浪郡故朝鮮國也”

9) [원주] 『水經注』의 저자 酈道元은 同書(권14)에 패수에 관한 의문을 서술하는 가운데, 왕검성에 관한 한마디를 하고 있다. 이제 그 大意를 말하면 “옛날 燕人 위만이 서쪽에서 와서 기씨 조선국을 멸하고, 그 수도인 왕검성에居했으나, 그 손자 右渠 때, 한 무제가 보낸 대군에 멸망하였다. 왕검성은 지금의 고구려의 수도이며, 내가 일찍이 고구려 사자에게 들었는데, 그 성은 溟水 북쪽에 있다”고 운운한다. 그런데 酈道元은 後魏사람이므로 그가 말하는 고구려 수도는 곧 평양이며 왕검성이 지금의 평양인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揚守敬이 그 저서 王險城考(『晦明軒稿』에 수록)에서, “왕검성은 지금의 대동강 남쪽에 있다”라는 新說을 제공하고, 4개항의 이유를 들었지만, 氏는 『사기』(권125) 조선전에 보이는 패수를 대동강으로 잘못 건주었기 때문에 모처럼의 議論도 모두 헛수고로 돌아간 것은 아쉬워 할 일이다. 덧붙여 패수현 항목을 볼 것.

(2) 誦邯縣(미상)

남감현의 위치는 전혀 알 수 없다.

(3) 淇水縣(지금의 義州 부근)

패수현은 분명히 그 이름을 패수에서 얻은 것인데,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는 漢魏시대의 패수를 지금의 압록강으로 단정하고, 舊說의 오류를 지적 하였다.<sup>10)</sup> 우리는 쓰다의 新說에 동의하고, 그의 말처럼 패수현을 압록강의 나루터로 하여 아마도 서안평과 마주했다는 추정에도 찬성한다. 이에 패수 현을 지금의 의주 부근으로 擬定한다.

(4) 含資縣(지금의 忠州로 추정)

지리지 함자현조에 “帶水是 서쪽으로 帶方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sup>11)</sup> 고 하였다. 그러므로 함자는 대수 상류 유역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방은 후술하듯 낙랑군 남부에 있는 縣이므로 대수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강일 것이다. 게다가 대수가 列水(지금의 대동강. 후술 예정) 남쪽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마땅히 지금의 한강일 것이다.<sup>12)</sup> 또 『삼국지』 권30, 魏志30 동이전 韓條 소인 『魏略』에 의하면, 王莽의 地皇年間(서기20~22년) 辰韓의 大官 廉斯鏞라는 자가 낙랑에 항복하려고 그 나라를 나왔는데, 우선 함자에 이르렀다고 한다.<sup>13)</sup> 이는 함자가 낙랑군의 속현 중 진한의 국경에 가장 가

10) [원주] 淇水考(『東洋學報』 제2권 211~227쪽)에 보이는 舊說이란, 『史記』 조선전에 소위 淇水是 지금의 압록강이지만 『한서』 지리지에 소위 淇水是 지금의 대동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강역고』(권8) 및 『조선고사고』(제2장)에 보인다.

11) 『漢書』 卷28下, 地理志 下. “帶水西至帶方入海”

12) [원주] 今西文學士의 百濟國都漢山考(『사학잡지』 제23권, 68쪽) 참조.

13) 『三國志』 卷30, 魏志30 東夷傳 韓條. “魏略曰 初 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亦與朝鮮貢蕃不相往來 至王莽地皇時 廉斯鏞爲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出其邑落 見田中驅雀男子一人 其語非韓人 問之 男子曰 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伐材木 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 積三年矣 鏞曰 我當降漢樂浪 汝欲去不 戶來曰 可 辰鏞因將戶來來出詣含資縣 縣言郡 郡即以鏞爲譯 從岑中乘大船入辰韓 逆取戶來 降伴輩尙得千人 其五百人已死 鏞時曉謂辰韓 汝還五百人 若不者 樂浪當遣萬兵乘

까웠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진한은 대개 지금의 경상북도 지방을 점유했다. 따라서 진한에서 낙랑에 이르는 것은 반드시 지금의 鳥嶺 또는 竹嶺을 넘어 한강 상류 유역인 충주로 나온다. 따라서 함자현은 아마도 충주 부근일 것이다.

#### (5) 黏蟬縣(지금의 三和로 추정)

지리지 탄열현조를 보면 “分黎山에서 列水가 나오는데, 서쪽으로 黏蟬에 이르러 바다에 들어간다. 길이가 820리이다.”<sup>14)</sup>라고 하였다. 列水는 帶水(지금의 한강)와 胙수(지금의 압록강)와의 사이에 있는 大川으로서 지금의 대동강이다.<sup>15)</sup> 즉 점선현은 이 江口부근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낙랑군 속현의 하나로 列口縣이 있으며, 그 명칭에서 미루어 보아 열수의 입구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점선·열구 2현의 상대적 위치는 어떠할까? 후한 말 낙랑군의 남부를 나누어 새로 대방군을 설치하였을 때, 열구는 이치하여 예속시키고, 점선은 그대로 머물게 하여 낙랑군에 속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열구가 남쪽에 있었고 점선은 북쪽에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 이에 우리는 전자를 지금의 풍천 부근으로 비정하고, 후자를 지금의 삼화 부근으로 비정하고자 한다. 열구현 항목 참조.

#### (6) 遂成縣(미상)

그 위치는 전혀 알 수 없다.

#### (7) 增地縣(지금의 龍川 서쪽으로 추정)

지리지 胙수현조에 “水(胙수)는 서쪽으로 增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

船來擊汝 辰韓曰 五百人已死 我當出贖直耳 乃出辰韓萬五千人 弁韓布萬五千匹 鏹收取直還 郡表鏹功義 賜冠幘田宅 子孫數世 至安帝延光四年時 故受復除”

14) 『漢書』 卷28下, 地理志 下. “分黎山 列水所出 西至黏蟬入海 行八百二十里”

15) [원주]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氏의 胙수고(『동양학보』 제2권 218~221쪽)에서 논하는 바, 바로 우리의 소견과 같기 때문에 다시 詳設하지 않는다.

다.”<sup>16)</sup>고 하였다. 그러므로 증지현은 패수의 하구에 위치하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패수현이 과연 지금의 의주 부근이라고 한다면 증지는 그 남쪽인 신의주 또는 용천 부근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8) 帶方縣(지금의 京城으로 추정)

帶水가 지금의 한강이라 한다면, 대방은 아마도 지금의 경성일 것이다.

(9) 靑望縣(미상)

(10) 海冥縣(미상)

모두 그 위치를 알 수 없다.

(11) 列口縣(지금의 豊川으로 추정)

지금의 풍천 부근일 것이다.<sup>17)</sup>

(12) 長岑縣(미상)

아직 자세하지 않다.

(13) 屯有縣(지금의 鳳山 부근으로 추정)

『삼국지』권30, 위지30 동이전 韓條를 보면 “建安 연간에, 公孫康이 屯有縣 이남의 황무지를 분할하여 帶方郡으로 만들고”<sup>18)</sup>라고 하였고, 『진서』권 14, 지리지의 보아도 鄧禹현은 西晉시대에 있어서도 낙랑군 소속의 현이었

16) 『漢書』卷28下, 地理志 下. “水西至增地入海”

17) [원주] 앞의 黏蟬縣 항목 참조. 列口의 이름에서 말하면 오히려 長連부근으로 比定해야 할 것 같다. 게다가 후에 원나라 동녕로의 南境이 풍천 북쪽에서 그친 것을 가지고 대방군의 北境도 대략 이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인 방편으로 풍천 부근으로 比定한 것이다.

18) 『三國志』卷30, 魏志30 東夷傳 韓條.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 爲帶方郡 云云”

다. 따라서 우리는 둔유현을 후한 말, 대방군 신설 당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라고 인정하고 낙랑군 남단에 위치하였다고 추측한다. 생각건대 지금의 봉산 또는 黃州 부근으로 비정할 수 있는 것이다. 附圖에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이를 봉산 지방에 표시한다.

(14) 昭明縣(지금의 開城으로 추정)

지리지에 소명현을 낙랑군 南部都尉<sup>19)</sup>治라고 명기하였다. 지금의 개성 부근이지 않을까한다.

(15) 鏤方縣(미상)

(16) 提奚縣(미상)

(17) 渾彌縣(미상)

이 3현의 위치는 아직 전혀 상세히 알 수 없다.

(18) 沓列縣(미상)

탄열현은 생각건대 沓水 즉 지금의 대동강 상류 유역에 있을 것이지만 그 지점을 자세히 비정할 수 없다.<sup>20)</sup>

19) [원주] 『후한서』권38, 백관지에 기록하는 바에 의하면 도위의 職掌은 시대에 따라 동일하지 않고, 또한 각종의 도위가 있어서 그 명칭도 일정하지 않지만, 『전한서』 지리지 記載의 例에 의하여 생각해 보면, 一郡에는 대개 한사람 이상의 都尉가 있고, 군내의 1현을 다스린다. 1군 1인 시대는 오직 도위라고 한 것을 例로 하지만, 2인 이상 있는 군에 있어서는, 도위의 治縣 위치에 따라서 동부도위 서부도위 남부도위 북부도위 중부도위 등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도위의 숫자는 변경의 도위에 있어서 많음을 例로 하여, 특히 北邊도위에서 가장 많다. 따라서 생각건대, 도위의 직무는 원래 경찰을 주로 했던 것 같지만, 內地에 있는 자는 어찌되었든 최소한 변경도위에 있는 자는 소위 오랑캐의 歸降을 취급하고 또는 그 侵寇를 방비하는 등, 새외민족에 관한 사건을 담당했던 것 같다. 昭明縣을 다스린 낙랑군 남부도위는 생각건대 한강유역 남쪽에 있는 土人, 즉 韓人을 懷柔하고 또는 위압하는 직무를 띤 것일 것이다.

20) [원주] 앞의 黏蟬縣 항목 참조.

(19) 東曉縣(지금의 江陵으로 추정)

동이현은 옛 臨屯郡治이지만, 군이 폐지되면서 낙랑군 관할이 되었다. 故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1851~1908]) 박사는 이를 지금의 강원도 江陵府 또는 그 부근이라고 하였는데<sup>21)</sup> 임시적인 방편으로 이를 따른다. 임둔군 15현 중 그 이름이 분명히 알려진 것은 동이현 뿐이지만, 이하 前莫縣에 이르기까지의 네 개의 縣도 그의 속현일 것이다.<sup>22)</sup>

(20) 不而縣(지금의 德源으로 추정)

『삼국지』권28 위지28 卍丘儉<sup>23)</sup>전에는 不耐라고 하였다. 東部都尉의 치소로서 지금의 덕원·영흥 등 어딘가에 해당할 것이다.<sup>24)</sup> 附圖에는 임시적인 방편으로 이를 덕원으로 표시한다.

(21) 蠶台縣(미상)

그 위치는 불확실하다. 그렇지만 잠태현은 이른바 영동7현<sup>25)</sup>의 하나임이 거의 분명하다. 그러므로 앞뒤로 서술된 여러 현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강원도 북부 또는 함경남도 남부에 있을 것이다.

(22) 華麗縣(지금의 永興 부근으로 추정)

화려현의 위치 역시 자세하지 않다. 『후한서』(권115) 동이전 고구려조에는

21) [원주] 朝鮮古史考(『史學雜誌』 第5編 287쪽) 참조.  
 22) [원주] 『漢書』卷6 武帝本紀 元封6年條, 臣瓚의 注에 “茂陵書 臨屯郡治東曉縣 去長安六千一百三十八里 十五縣 眞番郡治雪縣 去長安七千六百四十里 十五縣”이라고 쓰여 있다.  
 23) 원문에는 ‘母丘儉’이라 되어 있으나, ‘卍丘儉’이라 교정하고, 판구검으로 읽음.  
 24) [원주] (역자주 : 『만주역사지리』 원문) 24쪽 참조.(역자주 : 김지영·위가야, 2011, 「자료 소개 : 武帝 始建의 4郡」, 『만주연구』 12, 307~308쪽 참조.)  
 25) [원주] 영동7현에 관해서는 위지 동이전 동옥저조에 보인다. 영동이란 單單大領의 동쪽이란 뜻으로서, 단단대령은 지금의 평안·황해 2道와 함경도 남부 및 강원도 북부와의 분界 산맥인 대관령이고, 그리고 이 7현은 낙랑군 속현 중, 『한서』 지리지에 보이지만 『후한서』 군국지에 보이지 않는 東曉 이하 夫租에 이르는 7현으로서 동부도위 治下에 있는 것이다.(역자 주 : 『만주역사지리』 원문) 14쪽 참조.(역자주 : 김지영·위가야, 2011, 「자료 소개 : 武帝 始建의 4郡」, 『만주연구』 12, 297~298쪽 참조.)

“元初 5年(서기 118년)에 다시 일어나 濊貊과 함께 玄菟를 약탈하였고, 華麗縣을 공격하였다.”<sup>26)</sup>라고 쓰여 있다. 만약 이 글을 주의하여 읽지 않는다면, 화려는 현도군 내의 하나의 城 또는 현도군치 부근의 하나의 성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sup>27)</sup> 이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는 이것을 현도 침략과 화려성 공격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아울러 쓴 것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화려는 영동7현 중 고구려 국경에서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그 침공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본서의 附圖에는 임시적인 방편으로 이를 영흥 부근으로 표시한다.

(23) 邪頭昧縣(미상)

(24) 前莫縣(미상)

위의 2현도 역시 소위 영동7현에 속하지만, 그 위치는 알 수 없다.

(25) 夫租縣(지금의 咸興)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박사는 ‘부조는 沃沮일 것’이라고 말했다.<sup>28)</sup> 하지만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부조는 옥저의 異譯인 天租 또는 天沮의 誤寫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현도군 최초의 치소 옥저성은 본현의 치소일 것이다.

옥저성이 지금의 함흥부로 비정될 만한 것은 종래 이의가 없는 바이지만, 이에 대하여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박사는 가장 상세한 논증을 시도 하여<sup>29)</sup> 바야흐로 鐵案이 된 것이다.

26) 『後漢書』卷115, 東夷傳 高句麗條. “元初五年(서기 118년) 復與濊貊寇玄菟 攻華麗城”

27) [원주] 『대한강역고』(권1 현도고)에 “鏞案 始元徙郡之初不立華麗新縣 故班固地志 只於樂浪東部 載華麗舊縣 東漢之時新開一縣 冒之以華麗舊名 覽者群之”라고 쓰였으나, 이 設은 여지로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할 수 없다.

28) [원주] 조선고사고(『사학잡지』, 제5권 294쪽) 참조.

29) [원주] (역자 주 : 『만주역사지리』 원문) 21~25쪽 참조(역자주 : 김지영 · 위가야, 2011, 『자료소개 : 武帝 始建의 4郡』, 『만주연구』 12, 304~309쪽 참조.)

이상 25현 중 그 위치가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소수이다. 그러므로 낙랑군이 네 방향으로 각각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추측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패수·증지 2현이 지금의 압록강 하구 유역에 있음을 알았고, 또한 탄열현이 지금의 대동강 상류 유역에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금의 압록강 左岸[西岸]인 의주에서 동쪽, 청천강 하류를 마주보는 安州에 이르는 古來의 교통로 주변지역은 본군의 영역임이 거의 분명하다. 그렇다면 압록·청천 두 강의 하류 유역 및 대동강 전 유역은 본군 영역의 북부를 형성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우선 이렇게 추정하며 후세 역사에 있어서 두 개의 큰 세력이 한반도의 북부를 分領하여 서로 대립하는 사례를 보건대, 그 적절한 예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첫째 신라와 발해와의 대립, 둘째 고려와 金과의 대립, 셋째 고려와 元과의 대립이다.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남북 두 큰 세력의 분계선은 낙랑군의 北境과 가깝다 하겠는데, 이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고 하겠다. 먼저 신라·발해 양국의 경계를 생각하면, 지금의 대동강에서 덕원 부근에 이르는 一線인 것은 거의 분명하다. 그리고 대동강에서 압록강 하류에 이르는 지역은 당시에 있어서는 무소속 상태에 있는 것이지만, 군이 그 소속을 정하자면 차라리 唐朝의 영역에 속한다. 그렇다면 즉 발해의 南境은 지금의 창성 부근에서 동쪽으로 향하고, 청천강을 횡단하여 동해안인 덕원 북쪽에 이른다.<sup>30)</sup>

다음으로 고려와 金과의 국경은 이른바 高麗長城이다. 이 장성은 압록강 입구에서 시작하여, 昌城 부근에서 동쪽으로 꺾어 定平 북쪽, 함흥 남쪽을 거쳐 바다에 이르는 것이다.<sup>31)</sup> 金末, 지금의 間島를 근거지로 하여 그 남북의 광대한 지역을 영유한 東眞國의 南境도 역시 대략 이와 동일할 것이

30) [원주] (역자 주 : 『만주역사지리』 원문) 제2권, 제7편 「발해의 강역」 참조.

31) [원주] (역자 주 : 『만주역사지리』 원문) 제2권, 176~178쪽 참조.

다.<sup>32)</sup>

마지막으로 고려와 元과의 境界에 대해서는 당시의 東寧路 北境에 의해 알 수 있다. 동녕로는 至元 7년[서기 1270년]부터 동 27년[서기 1290년]까지 약 21년 동안 고려의 북부를 빼앗아 元朝가 설치한 것이다. 그 北境은 지금의 창성 부근에서 동쪽 희천·영원 등 諸城 북쪽을 거치는 一線이다.<sup>33)</sup>

이처럼 역사상의 實例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경계선 이북 지방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戶口가 희박하여 그 이남지방과 전혀 면목을 달리한다는 사실을 생각함에 옛적에 낙랑군의 북경 역시 대체로 위의 一線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 夫租(정확히는 天租縣이 지금의 함흥 부근인 것은 이미 서술한 것과 같으므로 함흥평야가 본군의 管內에 있었다.

낙랑군의 北境은 이상과 같은 고증에 의해 대략 정해졌다. 그러면 다른 세 방면은 어떠할까. 우선 그 西境은 압록강에 이르고, 東境은 동해<sup>34)</sup>에 도달하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南境에 대해서는 자칫 異說이 부분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帶水가 지금의 한강으로서 대방현은 지금의 경성 부근인 것이 이미 분명한 이상, 한강 유역이 본군의 治下에 있는 것 또한 분명하고, 남쪽은 마한에 인접할 것이다.<sup>35)</sup> 『삼국지』권30, 魏志30 동이전에 “韓은 帶方(舊 樂浪郡의 남부)의 남쪽에 있다.”<sup>36)</sup>고 하고, 또한 “桓帝[재위 146년~167년]·靈帝[재위 168년~189년](후한말의 2帝) 말기에는 韓과 濊가 강성하여 郡縣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많은 백성들이 韓國으로 유입되었다.”<sup>37)</sup>라고 한 것을 보면, 낙랑군의 南境은 그 創置이래 후한 중엽에 이르기까지 거의 항상 한강과 금강 두 강의 유역 분계선에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단 한강 유역과 떨어진 강원도에서의 본군과 진한과의 경계

32) [원주] (역자 주 : 『만주역사지리』 원문) 제2권, 256~258쪽 참조.

33) [원주] (역자 주 : 『만주역사지리』 원문) 제2권, 361~362쪽 참조.

34) 원문에는 ‘日本海’로 나와 있음. 東海로 수정 표기함.

35) [원주] (역자 주 : 『만주역사지리』 원문) 44~45쪽 참조(역자주 : 김지영·위가야, 2011, 「자료소개 : 武帝 始建의 4郡」, 『만주연구』 12, 325~327쪽 참조.)

36) 『三國志』卷30, 魏志30 東夷傳 韓條. “韓在帶方之南”

37) 『三國志』卷30, 魏志30 東夷傳 韓條.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에 대해서는 증거로 불릴만한 기록이 전혀 없음은 유감이다. 이를 후세의 역사서를 통해 비추어보건대, 장수왕에 의해 개척된 고구려국의 판도는 한강과 금강 유역의 분계선과 죽령에서 강릉·三陟 2성 사이에 이르는 일대의 산지로서 백제 및 신라와의 경계를 이룬다.<sup>38)</sup> 우리는 낙랑군의 南境도 대개 이와 부합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이에 附圖처럼 경계선을 긋는다.<sup>39)</sup>

## 2) 현도군

현도군은 낙랑군과 마찬가지로 무제 元封 3년(기원전 108년)<sup>40)</sup> 옥저의 故地<sup>41)</sup>에 설치되어 옥저성을 다스렸는데, 성이 지금의 함경남도 咸興府에 比定된다는 점은 이미 서술하였다. 현도군은 昭帝 始元 5년(기원전 82년) 진번군을 병합한데 이어 군치를 고구려현으로 옮겼다. 진번군의 병합과 군치의 西徙가 동시에 이뤄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증명할 수 없지만, 『한서』(권7) 昭帝本기에 “元封 6年(기원전 75년) 봄 正月에 郡國의 무리를 모아 遼東 玄菟城을 쌓았다”<sup>42)</sup>고 서술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한번 돌이켜 볼만한 기사이다. 여기서 현도성이란 것은 현도군치인 고구려현성을 가리키며, 그 앞에 遼東이라는 이름을 덧붙인 것은 옥저 땅에서 요동으로 옮긴 후의 현도군치임을 말한다.

그런데 현도군이 진번군을 병합한 후 겨우 7년 후 현도성을 축조한 것은

38) [원주] (역자 주 : 『만주역사지리』 원문) 315쪽 참조.

39) [원주] 지금의 강원도는, 예맥의 거주지로서, 경상북도는 辰韓國인 것은 대략 분명한 바이지만, 전한 초에 존재했던 임둔군은 명의상으론 어쨌든 실체상의 강역은 결코 강원도 남단에 이르렀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강릉 이남 三陟 이북을 그 南境으로 했을 것이다. 또 소위 영동7현 지역도 남쪽은 강릉 부근을 그 限界로 한 것이 아닐까. 과연 그러면 강원도 중 三陟이남 지방은 예맥이 아직 여기에 살면서 漢에 복속하지 않고, 진한과 한 군현과의 사이에 介在하여 왕왕 침략을 일삼았을 것이다.

40) [원주] 『漢書』卷28下, 地理志 下 현도군 항목에 “武帝元封四年開”라고 있지만, 四는 분명히 三의 잘못이다.

41) [원주] 옥저 지역은 지금의 함흥부 이북, 두만강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무제 시건의 현도군 치하로 들어가는 것은 아마도 지금의 함경남도에 사는 옥저, 즉 나중의 소위 남옥저뿐일 것이다.

42) 『漢書』卷7, 昭帝本紀. “元封六年(기원전 75년) 春正月 募郡國徒 築遼東玄菟城”

군치를 옮겼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군치를 옮길 필요에 대비하여 미리 이를 준비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원 5년[기원전 82년]에 이동한 것이라고도, 元鳳 6년[기원전 75년]을 전후하여 이동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시원 5년[기원전 82년] 습郡과 동시에 군치도 西徙하는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가장 온당할 것이다.

이제 현도군치의 西遷 원인을 생각해본다면 실로 夷貊의 압박이 그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夷貊이란 옥저 및 예맥을 총칭하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당시 2군의 폐합도 역시 생각건대 동일 사정 하에 행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폐합 즈음하여 진번이란 이름을 없애고 현도란 이름을 남긴 것을 가지고 보면 현도가 진번을 합쳤다고 운운한 것도 사실은 이에 위반되고, 현도군의 옛 땅은 그 남방 일부분 즉 지금의 함흥부 부근이 낙랑군에게 轉屬된 것 외에는 모두 沃沮族에게 되돌아갔으며, 진번군 故地<sup>43)</sup>의 東半部도 역시 대략 소위 夷貊의 소유로 돌아간 것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현도군의 강역은 실로 진번군 고지의 서반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지리지에 의하면 현도군은 고구려현에서 다스리고 그 외에 上殷台·西蓋馬 두 현을 領屬한다. 이제 그 比定을 시도할 것이다.

#### (1) 高句麗縣(지금의 興京 老城으로 추정)

지리지 高句麗縣條에 “遼山에서 遼水가 나오는데, 西南쪽으로 遼隊에 이

43) [원주] 진번군이 지금의 압록강 및 동가강 유역을 점하고 흥경 부근도 역시 그 治下에 있었던 것은 白鳥 박사의 연구에 의해 명확해지고, 이를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단지 그 四至 여하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문헌이 증명할 만한 것이 없고, 누구도 정확한 論斷을 내리기 어렵지만, 그러나 한·위 시대의 기록을 주로 하여 후세의 역사를 참고하면 반드시 이를 추측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즉 동쪽은 개마대산 즉 지금의 평안·함경 양 도의 분계산맥으로써 이를 가지고 옥저 즉 당시의 현도군과 접하여 남쪽은 창성부근에서 정평부근에 이르는 一線으로 낙랑군과 경계를 이루고, 북쪽은 압록·동가 유역 밖인 분수령으로 부여국과 이어졌을 것이며, 그리고 서쪽은 대략 明代의 邊牆(제2권 제7편 참조)과 같이, 지금의 무순 서쪽인 關口(一에 官口로 쓴다) 부근에서 구연성 북쪽 산지에 이르는 일선으로 요동군과 인접했을 것이다. 이상은 전한 昭帝 이후의 요동·낙랑·현도 3군의 영역과 후한 및 삼국시대의 고구려국 강역에서 추측한 것으로, 이 추측은 대체로 틀림없음을 믿는다.

르러 (大)遼水로 들어간다.”<sup>44)</sup>라고 하였고, 『水經注』(권14) 대요수 항목에는 “玄菟 高句麗縣에는 遼山이 있는데, 小遼水는 이곳에서 나온다.”<sup>45)</sup>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른바 요수 또는 소요수는 지금의 渾河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혼하 상류에는 英額河 및 蘇子河가 있고, 영액하는 英額邊門 외에 納嚨窩集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 영반 서쪽에 이르러 소자하와 합친다. 소자하는 汪淸邊門外의 呼倫嶺에서 나와 서북쪽으로 흘러 영액하와 만나 혼하가 된다.<sup>46)</sup> 지금은 영액하를 혼하의 本流라고 하지만, 漢代의 소요수는 차라리 지금의 소자하를 그 본류로 하는 것일 것이며, 따라서 이른바 요산은 지금의 호룡령 또는 그 부근의 산을 가리킬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 방면에서 혼하 유역에 이르는 고대의 교통로는 결코 북방의 영액하 유역이 아니라 반드시 통화현 부근을 거쳐 소자하의 계곡으로 나온 것이며, 이에 현도군치 고구려현은 이 교통로에 해당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고구려현을 소자하 유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 유역 중 가장 지세가 뛰어난 지방이라고 칭해지는 지금의 흥경노성 부근을 고구려현성의 소재지에 해당된다고 본다.<sup>47)</sup>

44) 『漢書』卷28下, 地理志 下. “遼山遼水所出 西南至遼隊入(大)遼水”(‘大’를 보임)

45) 『水經注』卷14, 대요수주. “玄菟高句麗縣有遼山 小遼水所出”

46) [원주] 『대청일통지』권36, 흥경산천 항목.

47) [원주] 고구려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종래 異說이 많고 아직 定說이 없다. 우선 『讀史方輿紀要』卷38, 山東9 外國附考條에 “高句麗城在咸興府東北 漢縣 爲元菟郡治 後漢因之 … 陳壽曰元菟郡初治沃沮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麗西北(위치 동이전에 따른다) 公孫氏據遼東 置元菟郡於遼東北二百里(吳志 孫權傳 注吳書에 따른다). 蓋因舊名 非復故治也 晉元菟郡仍治高句麗縣 蓋因公孫度所置耳”라고 쓰여 있다. 무제 시간의 현도군치인 옥저성은 지금의 함흥 부 부근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를 고구려성이라 부르고, 당시 이미 고구려현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기록한 것은 편자가 참고한 것의 오해이다. 또 공손씨 시대에 요동 북쪽 200리인 곳에 현도군치가 있고 고구려현이라 칭해졌음은 의심할 바 없지만 본군을 공손씨의 創置라고 한 것은 완전히 편자의 粗漏이다. 요컨대 고구려현의 위치는 본서에 의해 조금도 闡明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에 『大清一統志』(卷36) 흥경고적조를 보면, “高句麗故城在城(興京城)北 … 魏志漢武初 以沃沮城爲元菟郡 後爲夷貊所侵徙郡句麗西北 後漢公孫度時 皆治高句麗縣 吳書元菟郡在遼東北 相去二百里是也 後廢 按漢志 縣爲小遼水所發源 今興京北近渾河之源 蓋即高句麗縣地 云云”이라고 말한다. 역시 紀要의 誤謬 一半을 간파했지만, 『오서』에서 공손씨 시대의 고구려현성을 전한 시대의 그것과 같은 곳이라고 한 것은 紀要와 마찬가지로 오해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한시대의 현도군치를 서술하면서 詳論할 것이다. 또 『대청일통지』의 편자는 소요수의 발원지를 지금의 소위 혼하의 발

## (2) 上殷台縣(미상)

상은대현의 위치는 전혀 알 수가 없다.

## (3) 西蓋馬縣(미상)

漢代에 지금의 평안도와 함경도를 分界하는 산맥을 개마대산이라고 불렀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서개마현의 이름을 이 산의 이름에서 얻은 것 역시 추측할 수 있지만, 과연 어느 근처에 있었는지는 상세히 알 수 없다. 단 지리지 본현의 注에 馬訖水에 관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마지수 즉 압록강 상류 유역에 있었다고 알 수 있다.<sup>48)</sup>

원지, 즉 영액하의 발원지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본현의 위치를 영액변분 부근으로 추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것도 당시의 교통로에 대해서 고찰한 결과로서 소요수가 發源하는 요산은 이를 소자하의 발원지 부근에서 구하는 것이 지당한 것은 이미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대한강역고』(권1) 현도고를 보면, “又案東儒謂 武帝玄菟其後移遼東襄平北二百里以高句麗爲治所(『오서』의 글에 따른다.), 襄平者明之遼東都司也(지금의 요양주) 都司之北二百里爲小遼水之所出者不過是 今之所謂尖頭山 鐵背山之近地也(盛京志尖頭山在興京西北九十里 鐵背山在興京西北百二十里 有界蕃城) 小遼水者今之渾河也”라고 말한다. 이것 역시 『오서』에 소위 현도를 昭帝改建의 玄菟와 같은 곳이라고 오해할 뿐 아니라, 지금의 尖頭山, 철배산 등 부근 지방을 굳이 『오서』 기사에 합하게 한 것은 따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땅은 바로 요양 동북에 있으며 결코 이를 북쪽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한편 서로 거리를 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東國文獻備考』(권13) 여지도 현도군조에 “小遼水 今名渾河 西南流 南蘇水(『한서』지리지 현도군 고구려조에 보인다) 未詳 而西北流經塞外 則蓋歸於混同江者也 高句麗在二水發源之處 跨據遼山南北而爲縣”라고 보이고, 『方輿紀要簡覽』興京 항목에 “漢置玄菟郡 … 高句麗故城在城北”이라고 쓰여 있고, 故 나가 미치요(那珂通世) 박사는 조선고사고(『사학잡지』 제5편 289쪽)에서 위 2책 기사를 인용하여 “고구려 옛터는 지금의 흥경성 북쪽에 해당한다”라고 말한 것은, 박사의 精傳에 어울리지 않은 속단이다. 또한 양수경이 『水經注圖』 및 『前漢地理圖』에서 지금의 영액하를 소요수로, 송화강을 남소수로 比定한 것은, 역시 일리가 있는 말이다. 고구려현성을 송화·휘발 2강 합류점 남쪽 50정리 내외인 송화강안으로 표시한 것은, 너무 지리지의 글에 拘泥되어 다 른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서 온 잘못으로, 전혀 따르기 어려운 것이다.

[역자 주 : 중국에서 1리의 길이는 몇차례 변경되지만 대체로 576m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나라가 들어선 이후 척관법이 변경되어 1정리는 약 500m를 나타내며, 이에 위에 보이는 250정리는 대략 12.5Km, 50정리는 대략 2.5Km라 하였다.]

48) [원주] 『東國文獻備考』卷13, 여지도 현도군조에 “縣在蓋馬山之西鴨綠江之上游 東與東沃沮南與樂浪接 蓋今平安道廢四郡江界府等地方”이라고 나와 있으며, 故 나가 미치요(那珂通世) 박사는 이 設에 찬동했던 듯하다.(『사학잡지』 제5편 289항 참조) 단 서개마현이 압록강변에 있었음을 한나라 중엽 이전의 일로서, 그 말기에 이르러서는 지금의 혼하 상류로

이상 현도군 소속 3현 가운데 그 위치를 분명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고구려현 뿐이다. 따라서 애초에 이에 연유해서는 현도군 강역의 일반을 알 수 없지만, 현도군이 진번군의 故地에 설치된 것이 과연 이미 서술한 바와 같다. 그렇기에 적어도 소제 시대의 현도군은 무제시대의 진번군과 대략 그 강역을 같이 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지금의 조선 평안북도 대부분과 盛京省 興京府 전부를 포함하는 지역일 것이며,<sup>49)</sup> 소제 이후의 현도군은 그 동부에서 많고 적은 土人の 침략을 받은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역시 여전히 압록강 상류의 서쪽 지방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당시의 현도군은 매우 광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지에 同郡의 소속으로서 겨우 3개의 현만을 열거한 것은 일견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건대 설사 진번의 15현<sup>50)</sup> 전부가 새로운 현도군으로 移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반수 정도는 계속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도군의 西徙를 어쩔 수 없게 한 예맥 세력은 이후 점차 견잡을 수 없이 커져 전한 말기에 이르러서는 그 일파가 동가강에 자리 잡고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서』(권99下) 王莽傳에 의하면, 王莽의 흉노 정벌시 고구려인을 徵募하자 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塞外로 달아나 寇盜가 되었고, 莽은 노하여 建國 4년(서기12년) 군사를 보내서 그 추장 騶를 죽이지만, 고구려인은 이에 따라 깊이 莽을 원망하여 이후 塞를 넘어 寇掠하는 것이 심해지기에 이르렀다고 한다.<sup>51)</sup> 여기서 이른바 塞는 그 위치가 지금의

移治된 것 같다. 後文 參照.

49) [원주] (역자 주 : 『만주역사지리』 원문) 84~85쪽 注(3) 참조. (역자 주 : 본고의 각주 43번에 해당함.)

50) [원주] (역자 주 : 『만주역사지리』 원문) 77쪽 注(2) 참조. (역자 주 : 본고의 각주 22번에 해당함.)

51) [원주] 원문에 말하건대 “先是, 莽發高句驪兵, 當伐胡(匈奴), 不欲行, 郡(縣菟, 遼東 等)強迫之, 皆亡出塞, 因犯法爲寇. 遼西大尹田譚追擊之, 爲所殺. 州郡歸咎於高句驪侯騶, 嚴尤奏言, 貉人犯法, 不從騶起, 正有它心, 宜命州郡且尉安之. 今猥被以大罪, 恐其遂畔, 夫餘之屬必有和者. 匈奴未克, 夫餘穢貉復起, 此大憂也. 莽不尉安穢貉, 遂反. 詔尤擊之, 尤誘高句驪侯騶, 至而斬焉. 傳首長安. 莽大說, 下書曰 … 予甚嘉之, 其更名高句驪爲下句驪布告天下, 令咸知焉. 於是貉人愈犯遼東北, 與西南夷皆亂云”이라고 함. (역자 주 : 『만주역사지리』 원문의 방점을 그대로 인용함)

邊柵과 같고, 영액·왕청 2門 사이는 생각건대 고구려인이 출몰하는 곳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한 말에 고구려인의 세력이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압록강 유역은 물론 동가강유역도 역시 현도군 소유가 아니라고 추측한다.

故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박사는 『한서』 지리지의 기사를 平帝의 元始 2년(서기 2년)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였다.<sup>52)</sup> 그렇다면 지리지에 현도군 소속으로서 겨우 3현을 열거한 것 역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생각건대 당시의 현도군은 지금의 혼하 상류지역을 영유한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서개마현이 압록강 상류 지역을 통치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일찍이 예맥으로 넘어가고 동가강변 역시 그 점유로 돌아간 이상 서개마현의 移治는 필연적인 일이며 단지 그 移治가 한번으로 그쳤는지 아니면 2·3회에 이르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최후의 治所는 다른 2현과 마찬가지로 혼하 상류지역에 있었음은 거의 분명하다. 거듭 생각해보면, 서개마·상은대 2현이 후한시대에까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지 군국지 이외 문헌에 이제껏 보이지 않는다. 만약 혼하 상류에 이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고구려의 현도군 침략 기사<sup>53)</sup>에는 반드시 그 城名이 나타나야 할 텐데 그 사실이 없는 것은 생각건대 2현 모두 고구려현에 僑治했기 때문이 아닐까한다.

## 2. 後漢

### 1) 낙랑군

『후한서』(권23) 군국지에서는 낙랑군의 속현으로 朝鮮·誦邯·溟水·貪

52) [원주] 조선고사고(『사학잡지』 제5편 286쪽) 참조.

53) [원주] (역자 주 : 『만주역사지리』 원문) 95쪽 참조. (역자 주 : 본 논문의 229~230쪽에 해당함.)

資·占蟬·遂城·增地·帶方·駟望·海冥·列口·長岑·屯有·昭明·鏤方·提奚·渾彌·樂都의 18城이 열거되어 있다. 이를 『한서』 지리지 기록과 비교하면, 솜資의 솜이 貪으로 잘못되어 있고,<sup>54)</sup> 黏蟬의 黏이 占으로 되고, 遂成의 成이 城으로 되고, 吞列을 생략하고, 낙도를 덧붙였다. 그리고 전대에 있던 東曠·不而·蠶台·華麗·邪頭昧·前莫·夫租의 7현이 전혀 여기에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전대에 소위 영동7현으로서 낙랑에서 특과된 동부도위의 치하에 있었지만, 후한 초, 즉 建武 6년(서기30년) 변군도위 제도를 없애고 동시에 이 지방은 낙랑군 밖으로 방기되고, 한나라 조정은 토호를 列侯로 봉하여 겨우 그 땅의 옥저·예맥 등을 회유하였기 때문일 것이다.<sup>55)</sup>

이것을 요컨대, 후한시대에 낙랑군은 무제시건의 낙랑군과 그 강역을 같이 한다는 것이며 각 현의 위치도 역시 전혀 이동이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단 樂都和 吞列은 異名同地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후한 말,<sup>56)</sup> 공손강은 낙랑군의 남부를 갈라 새로 1郡을 두고, 이름 붙여 대방군이라고 하였다. 新郡의 領縣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없지만 서진 시대에도 여전히 대방군이 있었으며 『진서』(권14) 지리지에 대방·열구·남신<sup>57)</sup>·장잠·제해·함자·해명 7현을 그 속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創置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대방현은

- 54) [원주] 貪은 솜의 잘못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진서』지리지에도 솜資로 쓰기 때문이다.
- 55) [원주] 『삼국지』권30, 위치30 동이전 동옥저조에 “沃沮還屬樂浪, 漢以土地廣遠, 在單單大領之東分治, 東郡都尉治不而(즉 不而)城, 別主領東七縣, 時沃沮亦皆爲縣. 漢光武六年省邊郡都尉, 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 云云”이라고 쓰여 있다. 『후한서』권85, 동이전이 기록하는 바 대략 이와 같다.
- 56) [원주] 『삼국지』권30, 위치30 동이전 韓의 항목에 대방군의 新說을 建安中(서기196~219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손강이 비로소 그 아버지 度的 職을 이은 것은 건안 9년(204년)으로 그가 죽은 것은 위나라 황초 2년(221년)에 있고, 그러면 본군의 창설은 204~219년 사이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 57) [원주] 南新縣이란 이름은 처음으로 진서에 보이고, 그 建置는 분명하지 않지만, 汪士鐸은 그 저서 『漢志釋地』에서 진나라 시대, 낙도를 고쳐 남신이라고 칭했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3국 군현표(권5)에 보이는 낙도는 후한 시대, 신설된 낙랑군 속현 중 하나이다. 汪氏의 이 設은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서는 임시적인 방편으로 이에 따른다.

물론 그 郡治일 것이며, 그 南境은 前代의 낙랑군의 南境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그 北境, 즉 낙랑군과의 분계선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이를 자세히 알 수 없다. 대방은 지금의 경성 부근, 열구는 대동강구 남쪽에 있음은 거의 분명하지만, 다른 5현의 위치는 전혀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 경계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듯하지만, 만약 억측을 허락한다면 후세, 백제·고구려 두 나라가 대방군의 옛 땅을 다투고 서기 370년을 전후한 시점에서는 대략 지금의 慈悲嶺이 두 나라의 경계로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열구현의 위치로부터 2군의 경계도 대략 이와 같았으리라고 믿는다.<sup>58)</sup>

## 2) 玄菟郡

현도군의 치하에는 전대 이래 고구려·서개마<sup>59)</sup>·상은대 3현 외에, 前代에 있어서 요동군 치하에 있던 高顯·候城·遼陽·望平 4현이 來屬하였다. 현도군은 고구려현에 군치를 두었지만 고구려현은 후한 말기에 이르러 別地로 옮기게 되었고, 따라서 군치의 위치에도 이동이 생겼다. 다음 항목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 (1) 高句麗縣(처음에는 지금의 興京老城, 후에는 지금의 奉天 부근)

후한 초의 高句麗縣治가 지금의 興京老城 부근에 있었음은 王莽시대에 고구려국의 강역이 아직 동가강 유역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써 추측할 수 있다.<sup>60)</sup> 그런데 고구려의 세력이 점점 더해가자, 현도군은 침략을 당하였고 이에 군치도 오래 옛 땅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고구려 민족이 그 영토를 확장하는 데에 있어, 동방에 있어서는 그 주민이 대개 同種에 속하는 예맥·옥저 등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이를 경략할 수 있었으나, 西方을

58) [원주] (역자 주 : 『만주역사지리』 원문) 309쪽 참조.

59) [원주] 군국지에는 西蓋鳥라고 쓰지만, 鳥는 馬의 誤寫임이 분명하다.

60) [원주] (역자 주 : 『만주역사지리』 원문) 90쪽 참조. (역자 주 : 본 논문의 225~226쪽에 해당함.)

향하여 그 침략의 손을 뻗치려 하자 바로 현도·요동 2군의 漢민족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더하여 광무제[재위 25년~57년]의 대외 평화 정책이 그 효과를 거두고, 이어서 明帝[재위 57년~75년]·章帝[재위 75년~88년]·和帝[재위 88년~105년] 등 3帝 때 자못 서북 두 방면에서 兵威를 떨쳐서 고구려는 후한의 전반기 약 80년의 사이에는 한나라 조정에 從順하였다.

그런데 和帝의 晩年 宦官들이 점점 정사를 마음대로 하였고, 名將軍 班超가 죽자 한의 병위 역시 밖으로 떨침을 못하게 되었다. 더욱이 고구려에 英邁勇武한 태조대왕 宮[재위 53년~146년]이 등장하자 오래토록 평온한 남만주에서 한나라 영토는 다시 多事로와졌고, 현도·요동 2군은 자주 고구려의 침략을 당하였다.

이제 그 두드러진 것을 열거하면 和帝의 원흥 원년(105년) 宮의 군사가 요동군을 침입해 6현 지방을 寇掠하였고, 安帝의 영초 5년(111년)에는 그 사자를 보내서 현도군의 속국임을 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초 5년(118년)에는 예맥<sup>61)</sup>과 함께 와서 현도군을 침략했다. 특히 건광 5년(121년) 봄, 현도·요양 2군을 공격해 들어가 성곽을 불 지르고 2천여 명을 살상하고 돌아갔으며, 그 여름 다시 요동의 鮮卑人과 함께 깊숙이 遼隊까지 들어가 그 吏民을 殺掠하고 끝내 요동태수 蔡諷을 新昌에서 죽였다. 가을에 이르러 현도성 즉 현도군치를 포위했지만 부여군이 와서 漢軍을 도움으로 인해 처음으로 대패하고 동쪽으로 되돌아갔다.<sup>62)</sup>

한편 요대·신창 등 諸城은 지금의 요양 서쪽에 해당하는 혼하 하류지역에 있는 것이므로 이상의 사실은 적어도 서기 105년에서 121년에 이르는 사이의 일이며, 고구려의 침략은 거의 혼하 전유역에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에 있어서 현도군치인 고구려현은 결코 前代처럼 지금의 흥경노성 부근에 있었을 리 없고, 반드시 멀리 서방으로 옮겨 그 寇略을 피했을 것이다.

61) [원주] 여기서 소위 예맥은 결코 강원도에 사는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필시 압록강 동쪽의 토인이나 송화강 상류지역의 토인일 것이다.

62) [원주] 『後漢書』卷115, 高句麗條.

그리고 고구려 민족은 대신 소자하 유역을 점령하고, 이를 제2의 근거지로 삼아 이와 같은 대규모 침략을 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후한서』 군국지, 현도군 고구려현의 항목에 “遼山에서 遼水가 나온다”<sup>63)</sup>라고 쓰여 있어 『전한서』 지리지의 기사와 완전히 같으므로 누군가 혹 兩漢을 통틀어 지금의 흥경노성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소자하 유역이 늦어도 建光 元年(121년) 이전에 이미 고구려국의 소유로 돌아간 것에 대해 앞에 서술한 사정이 이를 분명하게 증명하는 이상, 군국지 기사는 지리지의 글을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sup>64)</sup> 그렇다면 현도군치인 고구려현성은 후한 중엽<sup>65)</sup>에 있어서 과연 어느 곳으로 옮긴 것일까? 우리는 이를 지금의 봉천 부근으로 比定하고자 하는데, 이하에서 그 이유를 略述할 것이다.

① 위지(권30) 동이전 동옥저조에, 한 무제 시건의 현도성은 옥저성에서 다스리지만 후에 고구려가 서북쪽으로 옮긴 일을 기록하고, 다음에 “지금의 이른바 縣菟 故府이다”<sup>66)</sup>라로 해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삼국시대에 있어서는 지금의 흥경노성 부근에 있는 고구려현성을 현도의 故府, 즉 현도군의 舊治라고 칭했음을 가리킨 것으로 당시 별도로 현도의 新府, 즉 현도군의 新治가 존재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新治야말로 곧 건광 원년(121년) 이전에 흥경노성 부근에서 옮긴 곳이라고 推斷할 수 있다.

② 同書 동이전, 부여조에서는 “夫餘는 長城의 북쪽에 있는데, 玄菟에서 千里쯤 떨어져 있다.”<sup>67)</sup>라고 말하고 있다. 부여의 중심은 지금의 장춘부 농

63) 『後漢書』卷23, 郡國志 玄菟郡 高句麗縣條. “遼山遼水出”

64) [원주] 『後漢書』卷23, 郡國志를 보면, 河南尹의 戶口는, 영화 5년(140년) 현재 숫자에 의해 他郡 모두 이에 準한다. 만약 이에 따라 군국지 기사가 영화5년의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고구려현의 장소에 “遼山遼水出”이라고 기록한 것은 편자의 粗漏라고 하겠다.

65) [원주] 『後漢書』卷23, 郡國志에 安帝 즉위 해(서기 106년) 高顯·후성·요양 3현이 요동군을 벗어나 현도군으로 移隸한 것을 기록한다. 현도군치의 西徙는 이해 또는 그 전후인 것이다.

66) 『三國志』卷30, 魏志30 東夷傳 東沃沮條. “今所謂玄菟故府也”

안현을 벗어나지 않는데, 즉 농안에서 남쪽 1천리로서 현도군치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③ 吳志(권2) 손권전. 嘉禾 2년조에 인용된 『오서』의 기사에 의하면, 손권의 사자 秦旦 등이 요동에 이르렀을 때 공손연이 갑자기 변심하여 그들을 현도성(현도군치)에 머무르게 하고 押籠과 같은 대우를 하자 그들이 一夜에 도망쳐 나와 고구려의 도읍인 환도로 향하여 險阻한 山谷 사이를 6·7백리 지나고 거듭 數日 더 가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한다.<sup>68)</sup> 이것은 실로 현도군치와 환도성과의 거리가 약 1천리 내외인 것을 가리킨다. 거듭 위지 동이전, 고구려조를 보면 “高句麗는 遼東의 동쪽 1千里 밖에 있다”<sup>69)</sup>라고 되어 있으며, 이것은 즉 요동군치인 襄平(지금의 요양)과 고구려의 수도인 환도(지금의 輯安 서북쪽)와의 거리이다. 이들里程은 원래 大數를 가리킨 것이지만 임시적인 방편으로 이것에 의해 현도성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이를 지금의 봉천부근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

④ 앞에 인용한 『오서』에서도 “玄菟郡은 遼東의 북쪽에 있는데, 서로 200리쯤 떨어져 있다.”<sup>70)</sup>라고 하였다. 이것이 당시의 현도성, 엄밀히 말하면 고구려현성이 지금의 봉천 또는 그 부근인 것을 입증하는 데 가장 유력한 기사이다. 생각건대 소위 요동은 襄平 즉 지금의 요양이라면 현도는 요양 북쪽에 있고 당시의 里數로 200리인 곳에 있는 것이다. 당시의 1리는 지금의 몇 리에 해당하는지 자세하지 않지만 지도를 펼쳐 봉천과 장춘과의 거

67) 『三國志』卷30, 魏志30 東夷傳 夫餘條. “夫餘在長城之北, 去玄菟千里”

68) [원주] 吳書曰, 初張彌·許晏等俱到襄平, 官屬從者四百許人, 淵欲圖彌·晏, 先分其人衆置遼東諸縣, 以中使秦旦·張群·杜德·黃疆等及吏兵六十人置玄菟郡, 玄菟郡在遼東北, 相去二百里, 太守王贊領戶二兼重可三四百人, 旦等皆舍於民家仰其飲食, 積四十許日, 旦與疆等議曰, 吾人遠辱國命, 自棄於此, 與死亡何異, 今觀此郡形勢甚弱, 若一旦同心焚燒城郭, 殺其長吏爲國報恥, 然後伏死足以無恨, 孰與偷生苟活長爲囚虜乎, 疆等然之. 於是陰相約結, 當用八月十九日夜發, 其日中時爲部中張松所告, 贊便會士衆, 閉城門, 旦·群·德·疆等皆踰城得走, 時群病疽, 創著膝不及輩旅, 德常扶掖, 與俱崎嶇山谷, 行六七百里, 創益困, 不復能前, 臥草中, 相與悲泣, …… 於是推旦·疆使前, 德獨留守群, 捕菜果食之, 旦·疆別數日, 得達句驪王宮 云云(역자주: 『滿洲歷史地理』 원문의 방점 및 굵은 글씨를 그대로 인용함.)

69) 『三國志』卷30, 魏志30 東夷傳 夫餘條. “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

70) 『三國志』卷47, 吳志2 吳主傳 嘉禾 2年條 “玄菟郡在遼東北 相去二百里”

리, 봉천과 輯安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이것을 봉천과 요양과의 거리로 비교하면 각기 약 다섯 배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봉천·요양 사이는 120浬인 것이 분명하므로, 삼국시대의 1리는 약 5分の 3浬라고 할 수 있겠다. 이里程의 계산에 대해서는 완전한 실측지도가 없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도저히 그 정확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이 연구를 他日로 넘긴다 해도 대체로 지금의 봉천이 당시의 현도군치, 즉 고구려현성임은 누구나 수긍하는 바라 하겠다.<sup>71)</sup>

(2) 西蓋馬縣(미상)

(3) 上殷台縣(미상)

이 2현은 후한 초에는 전한 말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훈하 상류 유역에 있어서 고구려현에 僑治하고, 후에 고구려현의 西遷과 함께 또한 西遷한 것으로 추측된다.

(4) 高顯縣(미상)

(5) 候城縣(初 지금의 奉天 부근으로 추정)

(6) 遼陽縣(지금의 彰驛站으로 추정)

이 3현은 전한 이래 요동군에 속했지만, 후한의 安帝(재위 106년~125년) 즉 위 해(서기 106년) 본군에 轉屬했던 것이다.<sup>72)</sup> 3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요동군 조에서 살펴볼 것이다.<sup>73)</sup>

71) [원주]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氏)는 서기 106년 본군에 轉屬한 候城縣을 지금의 봉천 부근으로 比定하였다. 과연 그러면 본현은 고구려현에 僑治한 것이리라.

72) [원주] 『後漢書』卷23, 郡國志 玄菟郡條에 “東觀書 安帝卽位之年 分三縣來屬”이라고 쓰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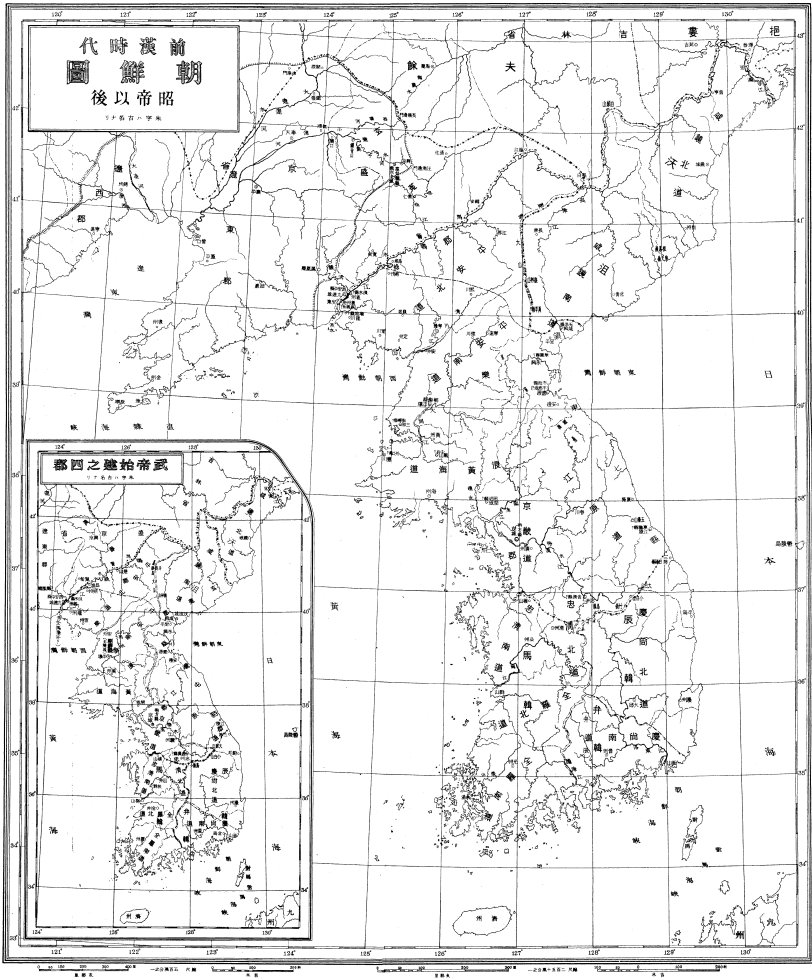
## (7) 望平縣(지금의 鐵嶺 부근)

망평현은 요동군 속현의 하나로서 군국지에 열거되었지만, 지금의 봉천을 시작으로 그 남쪽인 혼하 하류역이 이미 현도군의 管內임이 분명한 이상 망현군 즉 지금의 철령 부근은 물론 현도군에 속한 것이다. 군국지의 편찬에 실수가 많이 있음은 이로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 7현의 위치에 근거하고 또한 고구려국의 강역을 참고하여 후한 말기 현도군의 강역을 추측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건광 원년(121년)에 있어서 고구려의 침략은 지금의 혼하 전유역에 미치고 현도군치가 지금의 흥경노성을 버리고 멀리 서방인 봉천으로 물러난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는 현도군과 고구려국과의 경계를 흥경과 무순과의 사이에서 찾는 것을 온당하다고 인정한다. 이 두 곳 사이에서 혼하 계곡을 벗어나면 山嶽이 잇따라 걸쳐서 전혀 도로가 통할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고구려인의 西侵은 반드시 이 계곡을 따라 행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계곡 중 가장 天險이라고 인정할 만한 곳, 동쪽에 木碯의 고개가 있고 서쪽에 鐵背의 험지가 있어 모두가 두 나라의 分界點이 될 만한 곳으로 우리는 明代에 있어서 邊牆의 한 관문인 撫順關 즉 지금의 關口를 경계라고 보는 것을 한층 안전한 추정이라고 믿는다.<sup>74)</sup> 이리하여 현도군의 東境은 대략 정해졌고 다른 방면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면 봉천에 郡治를 두고 철령 등의 지역이 그 관내인 것이 명확한 이상 현도군의 西境은 요하에 도달한 것은 분명하다. 그 남쪽은 지금의 彰驛站 이남에 이르고 그 북쪽은 지금의 邊牆에 이르렀을 것이며, 환언하면 본군은 지금의 봉천부에 속하는 承德·鐵嶺·開原의 3현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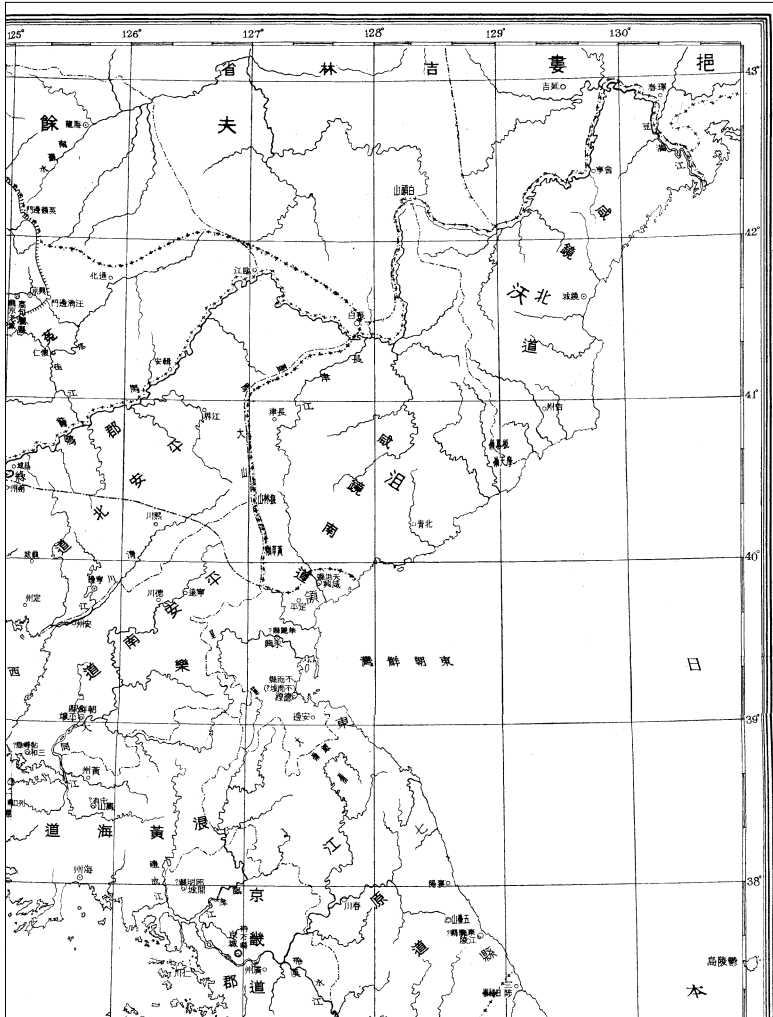
73) [원주] (역자 주 : 『만주역사지리』 원문) 118~122쪽 참조.

74) [원주] 第1編 附圖 明代 邊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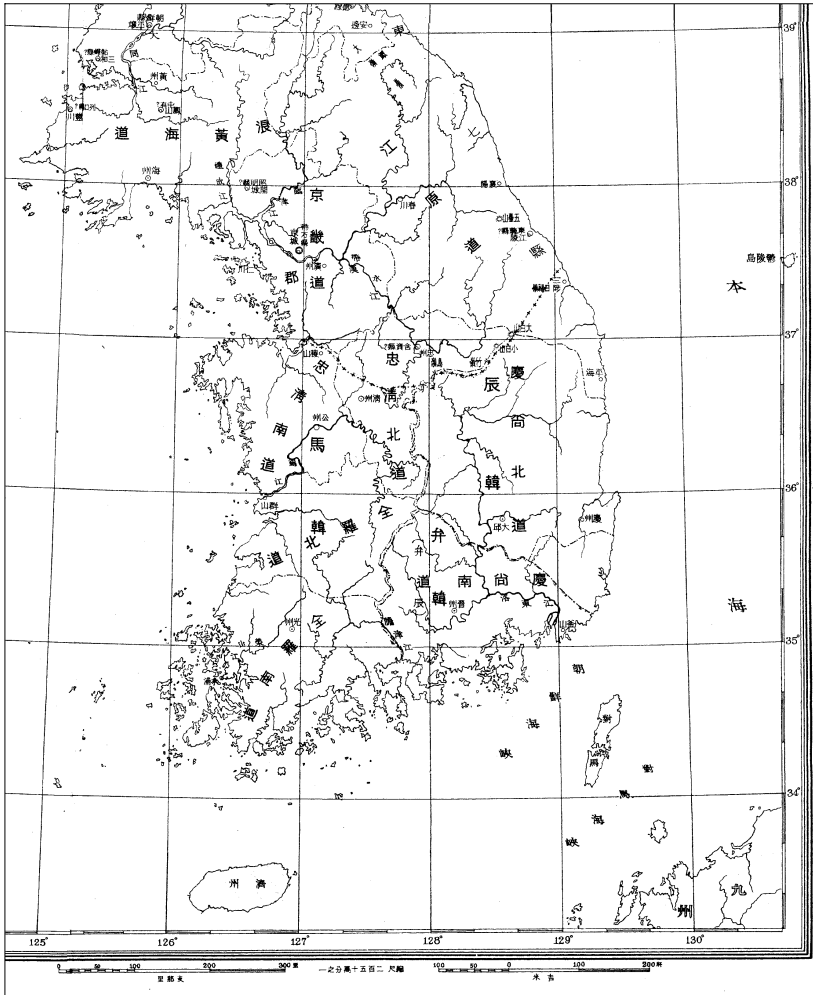


〈그림 1〉 前漢時代 朝鮮圖(昭帝以後)





〈그림 1-2〉 前漢時代 朝鮮圖(昭帝以後) 우측 상단 부분



〈그림 1-3〉 前漢時代 朝鮮圖(昭帝以後) 우측 하단 부분

www.kci.go.kr

투고일 : 2012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2년 5월 31일